



“정당당 선거 치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왼쪽), 송영길(왼쪽 두번째), 김진표(맨 오른쪽) 후보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서취미에 대표(가운데), 노웅래 당 선관위원장과 파이팅을 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경쟁에 동력 잃은 협치·연정

당 대표 후보들 지역위원장 표심 의식해 발언 신중모드

송영길 “꼭 필요”...김진표 “당 단결 중요”...이해찬 “연정 안돼”

청와대 등 여권이 제시한 협치 내각과 연정 구상이 민주당 당권 경쟁에 휘말려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일단 협치 내각과 연정 이슈는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은 협치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내각에 야권 인사를 등용하는 문제는 당내에서 선뜻 환영받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송영길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어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일부와도 협력하고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 대

표가 야당 대표와 저녁에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그러나 연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진표 후보는 1일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정치국민회의가 80여석을 갖고 김대중 정부를 창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140석이 넘었어도 분열로 인해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다”며 “협치와 연정을 얘기하게 앞서 당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후보는 “협 야당의 협조를 안 받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고의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서로 간에 도모해 나가야 한다”면서 “연정에 대해서는 ‘연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

는 것이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각 후보들이 이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대의원과 관리위원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당권 주자들로서 협치 및 연정에 부정적인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지역위원장은 협치 내각이 결국엔 연정으로 이어지고,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등과의 통합에 징검다리 놓이지 않느냐며 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들은 협치 내각 및 연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거나 원칙적인 언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추후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 후보들 간에 예비경선 낙선자·최고위원 후보자를 향한 구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기호순)는 1일 전당대회 초반 선거전의 세몰이를 위해 예비경선 탈락 후보 등을 끌어안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당권주자들의 구애 경쟁에도

예비경선 탈락 후보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도전자들과의 ‘짜짓기’도 관심사다. 특히, 해남이 고향인 박광은 후보는 상종가를 치고 있다. 김진표 후보는 박광은 의원이 자신의 과거 지역구(경기 수원시정)를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송영길 후보는 같은 호남 주자라는 점에서 박광은 의원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7월 초 현재 73만 명인 민주당 관리위원 가운데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가장 높아 호남의 선택이 당권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0% 순이었으며 충청 17%, 영남 12% 등으로 집계됐다. 전통적인 불모지로 여겨지는 영남지역의 관리위원 숫자가 많이 늘어 분선 승패를 가를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 정치 상징된 ‘봉하마을’

노무현 정신 재평가...정치인들 빅이벤트 앞 참배 줄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자리 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몰리면서 봉하마을이 한국 정치에서 갖는 상징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봉하마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성지(聖地)나 다름없는 곳이다. 선거 등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때는 물론이고 여론 인사들은 크고 작은 결단의 순간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정신’을 기렸다.

노 전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은 전대 컷오프 통과 직후 첫 행보로 지난 28일 봉하마을을 찾았다. 역시 전대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일 부산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 뒤 곧장 봉하마을에 들러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김진표 의원도 다음주 봉하를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정치가 되려나 봅니다”라고 했다. 바로 전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봉하마을을 찾은 데 대한 평가였다.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참배를 마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보수진영 정치인들도 봉하마을을 다녀가는 했으나 드문드문했다. 간혹 방문하더라도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 성격이 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8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다음 날 봉하마을을 찾았다.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적은 없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소위 ‘츄빙 혁명’ 이후 봉하마을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가 한층 달라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노무현 정신’이 진보·중도 지지층을 중심으로 시대정신화 되면서 보수진영에서도 봉하마을의 상징성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분류가 친노그룹의 뿌리를 이어받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옛 친노 진영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한껏 팽창한 게 사실이다. 한 관계자는 “그간 보수 정권 시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도로 낮았지만 만큼 상대적 재평가가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자리 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몰리면서 봉하마을이 한국 정치에서 갖는 상징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봉하마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성지(聖地)나 다름없는 곳이다. 선거 등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때는 물론이고 여론 인사들은 크고 작은 결단의 순간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정신’을 기렸다. 노 전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은 전대 컷오프 통과 직후 첫 행보로 지난 28일 봉하마을을 찾았다. 역시 전대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일 부산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 뒤 곧장 봉하마을에 들러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김진표 의원도 다음주 봉하를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정치가 되려나 봅니다”라고 했다. 바로 전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봉하마을을 찾은 데 대한 평가였다.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참배를 마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보수진영 정치인들도 봉하마을을 다녀가는 했으나 드문드문했다. 간혹 방문하더라도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 성격이 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8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다음 날 봉하마을을 찾았다.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적은 없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소위 ‘츄빙 혁명’ 이후 봉하마을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가 한층 달라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노무현 정신’이 진보·중도 지지층을 중심으로 시대정신화 되면서 보수진영에서도 봉하마을의 상징성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분류가 친노그룹의 뿌리를 이어받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옛 친노 진영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한껏 팽창한 게 사실이다. 한 관계자는 “그간 보수 정권 시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도로 낮았지만 만큼 상대적 재평가가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전대 후보 8~9일 등록

9일 앞당겨...예비경선 11일

바른미래당은 9·2 전당대회 후보등록과 예비경선 일정을 예정보다 9일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김철권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등록 신청 일자를 당초 8월 17~18일에서 8~9일로, 예비경선일을 8월 20일에서 1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 전국적 전대 흥행

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은 또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각각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경선에서 여성 최다 득표자가 컷오프 기준인 6위 안에 들지 못해도 6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TV 토론회는 지상파 방송3사 토론회 1회, 종합편성채널 토론회 2회, 권역별 지역 민방 토론회 5회 등 총 8차례 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 “물타기” vs 야 “공범 술책”...계엄령 전선 확대

민주·한국당 기무사 문건 놓고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일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언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갑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야당의 과도한 물 타기와 기무사 내부의 분열 호도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특별반)를 구성하고 즉각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해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정치로 여론을 호도하고 기무사를 비호하는 것이냐”면서 “기무사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앞장 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비상 상황 대비문건’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기무사 문건을 내란음모로 보고 한국당을 공범으로 몰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은 내란음모나

쿠데타가 아니고 일종의 위기관리 계획이나 매뉴얼”이라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적 정체성) 발언은 소신 발언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은 어떤 증거도 없이 마치 한국당을 내란 공범인 것처럼 몰고 있다”면서 “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적 음모, 기획 행위에 내가 온몸으로 저항하고 싸우겠다”고 했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 문건 공개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재호 농림장관 후보 재산 27억여원

9일 인사청문회

이재호 농림수산축산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26억7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모친, 차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총 26억7100만원이다. 이 후보자 본인은 전남 담양군의 임야(6994㎡·2500만원)와 예금 3억7200만

원 등 총 4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2억2400만원)와 전남 담양군 주택(2억5400만원), 예금 14억1300만원 등 21억7900만원을 보유했다.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범죄경력 조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7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토지 기타 추천

-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2천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2천 → 최저가 7억2천5백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상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⑤ 북구 영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5백 → 최저가 4억4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구 영촌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2천 → 최저가 2억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22평) ▶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 3억5천 ⑥ 광산구 운암동 남양이파크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⑦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